

장성택 방중의 의미

서 재 진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장성택 북한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이 10박 11일간 지난 1월 김정일이 방문했던 우한, 광저우, 선전 등 중국의 남순코스를 뒤따라 답습 방문을 마치고 3월 28일 베이징 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왔다. 2년여 전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성택이 권력의 전면에 복귀하여 30여명의 경제시찰단을 이끌고 중국 개혁·개방 현장을 방문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후 경제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장성택이 이번 중국방문에 30여명의 경제시찰단을 대동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북한의 경제난국을 돌파할 정책방안 마련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정책입안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장성택이 부여받았으며, 장성택 일행의 정책 입안과정을 거쳐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나 하반기쯤 순차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경제관련 조치를 추진할 임무를 김위원장 최측근인 장성택에게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장성택이 그 지시를 받고 김정일이 보았던 중국의 발전된 경제 실상을 확인하러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성택이 경제 문제에 책임을 맡은 것은 지난해 사망한 연형묵의 역할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대체로 당의 실세와 내각의 실무자로 나누어진다. 가령, 대남·대외는 오극렬, 당은 정하철, 군은 리용철, 내각은 연형묵이 당에서 실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제 경제의 실무자는 박봉주 내각총리이지만 당의 실세 책임자는 장성택이라는 것이다.

장성택은 철직되기 이전에도 2002년 10월 경제시찰단을 이끌고 남한의 산업시설을 방문한 바 있다. 장성택은 다른 인물과 달리 남한을 비롯한 중국 등 선진 경제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북한의 당과 군부 관료들은 대부분이 보수적이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며, 경제적 식견이 있는 내각의 경제관료들은 힘이 없어 과감한 자기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성택이 경제분야 책임을 맡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여 권력 실세가 경제문제를 담당한다면 전에 없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셋째, 2004년초 장성택의 2선 퇴진의 배경은 처벌보다는 정치적 고려였다고 볼 수 있다. 장성택의 퇴진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사실은 김위원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다

가 입게 된 정치적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성택의 2선 퇴진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을 하던 90년대 중후반 민심이 흉흉해지자 북한은 사회 혼란을 통제하기 위하여 1997년경부터 소위 심화조에 의한 사회검열을 실시한 바 있다. 일반주민과 권력엘리트에 대한 대대적인 사상 검열을 실시하였는데 이 조치의 주무부서를 사회안전부로 하고 그 막후 책임을 장성택에게 맡겼다.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사회통제 차원의 검열을 실시하였고 권력엘리트에 대해서는 김정일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장성택은 본부당 책임비서 문성술 등 수많은 간부들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화조 활동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원자탄이 떨어졌다”고 일컬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직장에 30분만 지각해도 심화조에 걸릴만큼 통제가 엄격하였다. 이때 2만여명이 처벌받았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너무 나빠지자 북한은 사회안전부의 심화조 역할을 중단시키고 최문석 사회안전부장을 반혁명으로 몰아서 책임을 물었고, 사회안전원 6천명을 처벌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안전부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안전부를 인민보안성으로 개명하였다. 이때 장성택은 반대세력들로부터 견제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2004년 초 ‘권력욕에 의한 분과 행위’를 이유로 2선으로 물러난 것이다. 즉 장성택의 퇴진은 치명적인 숙청이 아니라 민심이 잦아질 때까지 잠시 2선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김정일의 권고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권력에 복귀한 장성택은 경제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장성택에 대한 김위원장의 신임은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서둘러 새로운 경제정책 조치의 일단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